

연중 제33주일
(평신도 주일 ·
11월 14일)

우직하게 그대로 실천하는 삶

벌써 11월의 중순, 겨울방학이 머지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낙엽이 지고 찬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우리는 죽음과 종말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신부님이 신학생일 때, 11월이면 위령의 달을 맞아 성직자 묘지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란 말을 되새기며, 결국 죽을 때엔 아무 것도 지니고 갈 수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근심하며 살아왔는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용기 없이 침묵하며 살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곧 닥치게 될 죽음에 대해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이 곧 신앙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며 참고 견디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우리를 잡아 넘기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아무 근심걱정이 없고 세상에서의 축복을 다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지요. 요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왕따’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자주 다투게 되고 때론 미워하기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학교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 혹은 그 밖의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의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인 적이 있었는지요? 시험기간이나 여행을 다닐 때에도 주일 미사는 봉헌해야겠다고 말해서 가족이나 선생님과 마찰이 있었던 때가 있나요? 누군가 큰 잘못을 해서 많은 이들

그리스도 왕 대축일
(11월 21일)

내 삶의 주님이며 왕이신 분

어디선가 읽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이 그 친구는 그에 맞는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고집을 부려서 놀림과 미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빌려 가면 다시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친구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번번이 돈을 빌려 줬다가 받지 못해 다른 친구들에게 바보라는 놀림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시관과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편하게 구원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계산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알렉산더 대왕은 서구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를 자기 지배 하에 두었으며,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런 알렉산더가 병으로 죽어 가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 밖으로 내 두 손을 내어놓아 만인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내가 지금껏 온 천하를 다스리며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이처럼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내 후대에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양을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이스라엘의 나자렛이라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 있었던 예수라는 청년은 권력도 없었고 아무런 힘도 없지 않았던가? 그에게는 병사도 없었으며 마차도 없었고 아무런 무기조차 없었다. 그는 또 주변 국가를 정복하여 사람들을 힘과 권력으로 억압함으로써 그들을 굴복시키지도 않았다. 또한 그는 십자가 위에서 연약하고 불품없는 모습으로 죽어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1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면서 섬기고 따르는가? 그 청년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었구나!”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왕들도 결국 세상의 허무함을 고백하며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비석과 거대한 봉분으로 장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역사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로 기록된다 해도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참된 왕이셨음을 고백하는 나폴레옹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피조물에 불과하며 예수